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응급상황 경험과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 및 교육요구도

권유진* · 정상길**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뜻하지 않은 사고에 의한 장애 및 사망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¹⁾. 사망통계에 의하면 2006년도 우리나라 1~9세 어린이 사망률은 10만 명 당 43.6명, 10~19세는 44.7명이었다. 이들 사망원인의 대부분은 예방이 가능한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익수, 추락, 화재 등의 순이었으며, 사고로 인한 사망은 1~9세 어린이 사망의 32.1%, 10~19세는 32.9%를 차지하였다²⁾.

학생들은 생활의 과반수 이상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여러 명이 집단 생활을 하며, 아직은 미숙한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많은 사고와 질병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³⁾.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신체적인 성장이 빠르고 활동적인 놀이나 경기를 좋아하며,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반면에 주의력과 사고에 대

한 안전의식이 부족해서 그들이 처한 주변환경에 대한 행동이 민첩하거나 상황판단이 정확하지 못해 조그마한 신체적 활동에도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⁴⁾.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고의 위험성이 실제 사고로 이어질 때는 사망이나 불구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골격계의 미발달로 인해 가벼운 충격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입을 수도 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사고자의 생명과 예후는 사고현장에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행동 여부에 따라 좌우되므로 최초반응자의 응급처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⁵⁾.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보면 외국의 경우는 보다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응급처치 교육은 이론과 실습시간이 충분하게 배정되어 있으며, 아동을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국가차원의 프로그램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공포한 후 최근 보건교육 커리큘럼에 기본인명구조술이라는 통합훈련 프로그램을 학교에 권고하고 있다⁶⁾. 노르웨이에서는 1961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은 1988년부터 교육강령을 제정하여 학교 교과과정에서 운영하고 있다⁷⁾.

반면, 이¹⁾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처치관련 교과내용

*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119구급대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비중은 6학년(2.72%), 3학년(1.38%), 4학년(1.21%), 5학년(0.43%) 순이었으며, 1학년과 2학년에서는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교과서의 내용도 도움요청, 상처, 골절, 화상 등이 단편적으로만 실려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은 실습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습보다는 이론적이고 형식적 교육에 그치고 있으며, 정규수업이 아닌 특별활동 시간이나 필요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응급처치 실기교육이 가능한 연령은 11세부터로 이 시기의 아동들은 빨리 배우고, 동기유발이 쉬우며, 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과 어른들에게 전달교육이 가능하다고 보고 되고 있다⁶⁻⁸⁾.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시작 시기나 대상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선행연구⁹⁻¹¹⁾는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선행연구에서 모두 응급처치 교육을 받기에 초등학교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연구의 경우는 주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된 응급상황에 대한 보고가^{4,12-15)} 주를 이루고 교육 요구나 지식수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응급상황 경험 실태와 응급처치 지식수준,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여 초등학교 대상 응급처치 교육 계획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응급상황 경험실태를 파악한다.
- 2) 응급상황 발생 시 반응을 알아보고,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 3) 학생들의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경험과 응급처치 지식수준을 파악한다.
- 4) 학생들의 응급처치 교육요구도를 알아보고, 교육요구도와 관련있는 특성을 파악한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 2개 초등학교를 임의 선정된 후, 선정된 학교의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O 초등학교는 4~6학년 3개 학급씩 9개 학급, K 초등학교는 4학년 3개 학급, 5학년 4개 학급, 6학년 2개 학급, 총 18개 학급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학급의 학생 전수를 조사하였다. 2008년 7월 11일부터 7월 25일의 조사기간 동안 총 5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512명이 응답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이 충실한 437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수집방법

본 조사는 선정된 반의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 연구자가 학생에게 연구의 취지와 조사방법을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와 전문가 의견을 참고로 설문내용을 구성한 후 본 조사 전에 초등학교 4~6학년 10명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어려운 내용을 수정 보완 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총 56문항으로, 조사내용은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성적,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가정형편, 등교수단, 운동여부, 질병유무 등), 응급상황 경험 관련 특성(경험횟수, 상황, 시기, 장소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최초행동, 응급처치 교육 경험 관련 특성(교육여부, 교육자, 내용 등), 응급처치 지식수준과 교육요구도로 이루어졌다.

이 중 응급상황 경험은 다쳤거나 아파서 병원진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했던 경험으로 하였고, 교육요구도는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기 원하는지의 요구도로 하여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로 답한 경우 '원함'으로 분류, '그저 그렇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로 답한 경우 '원하지 않음'으로 분류하였다.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은 서¹⁶⁾가 개발한 도구와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재¹⁷⁾를 이용하였고,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의 경우 대상자의 수준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연부조직 손상 3문항, 화상 2문항, 두부손상 3문항, 근골격계 손상 4문항, 이비인후과 응급처치 3문항, 안과 응급처치 3문항, 치과 응급처치 2문항, 환경손상 2문항, 호흡 및 순환기계 응급처치 4문항, 기타 3문항 등 29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답안은 문항의 질문을 '맞다', '틀리다', '잘 모른다'의 보기 중 표기하게 하여 정답과 오답을 채점하였고, '잘 모른다'로 답한 경우, 오답으로 채점하였다.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최고점수 29점, 최저점수 0점으로 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version 12.0)으로 분석하였으며, 변수의 특성에 따른 분포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경험한 응급상황별 분포를 알아보았고, 대상자의 여러 특성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 경험, 지식수준, 교육요구도를 비교하였다. 이에 사용한 통계분석방법은 카이제곱 검정, t-검정, 분산분석 등이었다.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응급처치 교육요구와 관련이 있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분석에서 유의하였던 변수를 독립변수로, 교육요구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교육요구도에 대한 비차비와 95% 신뢰구간을 제시하였다.

III.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437명 중 남학생은 53.1%이었고, 여학생은 46.9%이었다. 학년별로는 4학년이 30.2%, 5학년이 41.6%, 6학년 28.1%이었다. 학업성적별로는 중위권인 학생이 63.8%, 상위권인 학생이 28.4% 순이었고,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이 49.7%로 가장 많은 반면,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45.8%로 가장 많았다. 가정형편은 '중'이라고 답한 학생이 74.4%이었고, 그 다음 '상'이라고 답한 학생이 22.2%였다. 도별로 등교하는 학생이 93.4%, 운동을 하는 학생은 84.2%, 질병이 없는 학생이 85.1%로 나타났다(표 1).

2. 응급상황 경험

(1) 응급상황 경험률과 관련요인

대상자 437명 중 초등학생이 된 후 응급상황을 경험한 학생은 208명으로 47.6%였다. 대상자 특성별 응급상황 경험률은 남학생 52.6%로 여학생 43.0%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에서 54.1%로 고졸이하 40.5%, 대학원졸 51.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도보 외에 다른 수단으로 등교하는 학생이 65.5%로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 46.3%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운동을 하는 학생이 50.8%,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 30.4%로 운동을 하는 학생의 응급상황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응급상황 경험률은 성별, 어머니의 학력, 운동여부, 등교수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년, 성적, 아버지의 학력, 가정형편, 질병유무에 따른 응급상황 경험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명	%
성별	남	232	53.1
	여	205	46.9
학년	4	132	30.2
	5	182	41.6
	6	123	28.1
성적	상	124	28.4
	중	279	63.8
	하	34	7.8
아버지의 학력	고졸이하	169	38.7
	대졸	217	49.7
	대학원졸	51	11.7
어머니의 학력	고졸이하	200	45.8
	대졸	196	44.9
	대학원졸	41	9.4
가정형편	상	97	22.2
	중	325	74.4
	하	15	3.4
등교수단	도보	408	93.4
	기타	29	6.6
운동여부	유	368	84.2
	무	69	15.8
질병유무	유	65	14.9
	무	372	85.1
합 계		437	100.0

(2) 응급상황 경험실태

초등학생이 된 후 경험한 응급상황의 종류는 상처(25.4%)가 가장 높았고, 소화불량(11.0%), 염좌(10.5%), 복통(6.2%), 속쓰림(5.9%), 골절(5.7%) 등의 순이었다(표 3).

응급상황 경험자 208명 중 가장 최근 응급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추락이나 낙상(41.3%), 과식 등 음식을 잘못 먹음(14.9%), 물건 등에 부딪침(9.6%), 교통사고(8.7%), 운동하던 중 부상(7.2%), 칼에 베이거나 찔림(6.3%) 등의 순이었다(표 4).

응급상황 경험자 208명 중 가장 최근 응급 상황을

경험했던 시기가 5학년이라고 답한 학생(28.3%)이 가장 많았고, 4학년(25.0%), 3학년(17.8%), 6학년(12.5%), 2학년(9.1%), 1학년(7.2%) 순이었다(표 5).

가장 최근 응급상황이 발생한 장소는 학교(40.9%), 집(32.2%), 도로(14.0%), 기타 장소(12.9%) 순이었다. 학교에서 발생한 응급상황 장소는 교실(43.5%), 운동장(38.8%), 기타 장소(15.3%), 과학실(2.4%) 순이었고, 발생시간은 점심·쉬는 시간(35.3%), 교실수업시간(20.0%), 체육시간(20.0%), 등·하교시간(18.8%), 청소시간(3.5%), 실험·실습시간(2.4%) 순이었다(표 6).

〈표 2〉 대상자 특성별 응급상황 경험 차이

단위 : 명(%)

변 수		유	무	χ^2	p
성별	남	122(52.6)	110(47.4)	4.518	0.034
	여	86(43.0)	119(58.0)		
학년	4	62(47.0)	70(53.0)	3.421	0.181
	5	95(52.2)	87(47.8)		
	6	51(41.5)	72(58.5)		
성적	상	62(50.0)	62(50.0)	0.498	0.779
	중	131(47.0)	148(53.0)		
	하	15(44.1)	19(55.9)		
아버지의 학력	고졸이하	74(43.8)	95(56.2)	2.211	0.331
	대졸	106(48.8)	111(51.2)		
	대학원졸	28(54.9)	23(45.1)		
어머니의 학력	고졸이하	81(40.5)	119(59.5)	7.559	0.023
	대졸	105(54.1)	90(45.9)		
	대학원졸	21(51.2)	20(48.8)		
가정형편	상	54(55.7)	43(44.3)	3.269	0.195
	중	147(45.2)	178(54.8)		
	하	7(46.2)	8(53.3)		
등교수단	도보	189(46.3)	219(53.7)	3.999	0.046
	기타	19(65.5)	10(34.5)		
운동여부	유	187(50.8)	181(49.2)	9.676	0.002
	무	21(30.4)	48(69.6)		
질병유무	유	33(50.8)	32(49.2)	0.308	0.579
	무	175(47.0)	197(53.0)		
계		208(47.6)	229(52.4)		

 χ^2 - 검정으로 검정

3. 응급상황 목격 시 최초의 행동

응급상황 목격 시 최초의 행동은 '도움요청'이 85.1%로 가장 높았고, '직접 응급처치'는 10.5%, '그냥 지나침' 3.0%, 기타 2.0% 순이었다. 5학년에서 '직접 응급처치'가 17.0%로 4학년 6.8%, 6학년 4.9%보다 유의하게 높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7).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요청 대상은 119(53.2%), 보건교사(27.7%), 담임교사(7.0%), 가족(6.2%), 기

타(4.8%), 친구(1.1%) 순이었다(표 8).

4. 학생들의 응급처치 교육 경험

응급처치에 관해 교육을 받은 학생은 71.4%였고, 대상자 특성별 응급처치 교육경험을 비교해보면, 4학년이 44.7%, 5학년이 80.2%, 6학년이 87.0%로 학년별 응급처치 교육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성적이 '상'이라고 답한 학생이 84.7%, '중'이라고 답한 학생이 68.1%, '하'라고 답

〈표 3〉 경험한 응급상황 종류(다중응답)

변 수	명	%
상처	111	25.4
소화불량	48	11.0
염좌	46	10.5
복통	27	6.2
속쓰림	26	5.9
골절	25	5.7
벌레물림	24	5.5
머리손상	20	4.6
화상	19	4.3
치아손상	17	3.9
기타	1	0.2
합계	364	100.0

* 기타(눈이물질, 귀이물질, 일사병, 호흡곤란, 의식소실, 중독, 간질, 심장마비)

〈표 4〉 가장 최근 경험한 응급상황의 원인

변 수	명 (n=208)	%
추락, 낙상	86	41.3
음식을 잘못 먹음(과식 등)	31	14.9
물건에 부딪침	20	9.6
교통사고	18	8.7
운동하던 중 부상	15	7.2
칼에 베임, 찔림	13	6.3
화상	9	4.3
동물이나 곤충에 물림	4	1.9
중독	1	0.05
기타	11	5.3

〈표 5〉 가장 최근 경험한 응급상황 시기 및 발생장소

변 수	명 (n=208)	%	
시기	1학년	15	7.2
	2학년	19	9.1
	3학년	37	17.8
	4학년	52	25.0
	5학년	59	28.3
	6학년	26	12.5
장소	학교	85	40.9
	집	67	32.2
	도로	29	14.0
	기타	27	12.9

〈표 6〉 가장 최근 학교에서 경험한 응급상황의 경우 장소, 시간

변 수		명 (n=85)	%
장소	교실	37	43.5
	운동장	33	38.8
	기타	13	15.3
	과학실	2	2.4
	미술실	0	0
시간	점심· 쉬는시간	30	35.3
	교실수업시간	17	20.0
	체육시간	17	20.0
	등· 하교시간	16	18.8
	청소시간	3	3.5
	실험· 실습시간	2	2.4

〈표 7〉 대상자 특성에 따른 응급상황 목격 시 최초 행동 분포

단위 : 명(%)

변 수		도움요청	직접응급처치	그냥 지나침	기타	χ^2	p
성별	남	194(83.6)	28(12.1)	8(3.4)	29(0.9)	2.563	0.464
	여	178(86.8)	18(8.8)	5(2.4)	4(2.0)		
학년	4학년	118(89.4)	9(6.8)	4(3.0)	1(0.8)	15.347	0.018
	5학년	142(78.0)	31(17.0)	6(3.3)	3(1.6)		
	6학년	112(91.1)	6(4.9)	3(2.4)	2(1.6)		
계		372(85.1)	46(10.5)	13(3.0)	4(2.0)		

 χ^2 -검정으로 검정

〈표 8〉 도움 필요 시 요청대상

변 수	명 (n=372)	%
119	198	53.2
보건교사	103	27.7
담임교사	26	7.0
가족	23	6.2
친구	4	1.1
기타	18	4.8

〈표 9〉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생들의 응급처치 교육 경험 차이

단위 : 명(%)

변 수		유	무	χ^2	p
성별	남	171(73.7)	61(26.3)	1.063	0.302
	여	141(68.8)	64((31.2)		
학년	4학년	59(44.7)	73(55.3)	67.663	0.001
	5학년	146(80.2)	36(19.8)		
	6학년	107(87.0)	16(13.0)		
성적	상	105(84.7)	19(15.3)	19.816	0.001
	중	190(68.1)	89(31.9)		
	하	17(50.0)	17(50.0)		
아버지의 학력	고졸이하	115(68.0)	54(32.0)	1.776	0.412
	대졸	161(74.2)	56(25.8)		
	대학원졸	36(70.6)	15(29.4)		
어머니의 학력	고졸이하	137(68.5)	63(31.5)	1.944	0.378
	대졸	143(73.0)	53(27.0)		
	대학원졸	32(78.0)	9(22.0)		
가정형편	상	76(78.4)	21(21.6)	3.071	0.215
	중	225(69.2)	100(30.8)		
	하	11(73.3)	4(26.7)		
등교수단	도보	289(70.8)	119(29.2)	0.953	0.329
	기타	23(79.3)	6(20.7)		
운동여부	유	268(72.8)	100(27.2)	2.334	0.127
	무	44(63.8)	25(36.2)		
질병유무	유	48(73.8)	17(26.2)	0.224	0.636
	무	264(71.0)	108(29.0)		
계		312(71.4)	125(28.6)		

 χ^2 -검정으로 검정

한 학생이 50.0%로 성적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경험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응급처치 교육경험은 학년, 성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성별,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가정형편, 등교수단, 운동여부, 질병유무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9).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시간은 응답자 312명 중 체육시간(56.7%), 방송교육시간(24.6%), 일반교과

시간(17.9%), 기타 시간(16.9%), 창의적 재량시간(4.8%) 순이었고, 응급처치 교육자는 보건교사(67.3%), 외부강사(39.1%), 담임교사(9.2%), 체육교사(0.6%) 순이었다.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내용은 인공호흡, 심폐소생술(52.5%), 일반적인 외상의 처치 및 붕대법(48.7%), 동물이나 벌레에 물리거나 쓰였을 때 응급처치(35.5%), 기도폐쇄 처치(30.4%), 눈·귀·치아의 이상처치(25.9%) 순이었다(표 10).

〈표 10〉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시간, 교사, 교육내용(다중응답)

		변 수	명	%
시간	체육시간		177	56.7
	방송교육		77	24.6
	일반교과시간		56	17.9
	창의적재량시간		15	4.8
	기타		53	16.9
		합 계	378	
교육자	보건교사		210	67.3
	기타외부강사		122	39.1
	담임교사		29	9.2
	체육교사		2	0.6
		합 계	363	
내용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164	52.5
	일반적인 외상의 처치 및 붕대법		152	48.7
	동물이나 벌레에 물리거나 쓰였을 때 처치법		111	35.5
	기도폐쇄 처치법		95	30.4
	눈·귀의 이물질 제거법, 치아손상 처치법		81	25.9
	일사병 처치법		71	22.7
	중독 처치법		21	6.7
	간질 처치법		7	2.2
		합 계	702	

5. 응급처치 지식수준

응급처치 관련 지식점수는 29점이 최고점수로 평균(±표준편차)점수는 13.95±4.1점이었는데, 이를 백점만점으로 환산하면 50점 이하였다. 영역별 정답률을 보면 찰과상의 응급처치 83.3%, 두부손상에 관한 응급처치 82.8%, 눈의 이물질에 관한 응급처치 80.5%, 심폐소생술에 관한 응급처치 78.3% 등은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나, 귀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응급처치 4.6%, 벌에 쓰였을 때 응급처치 6.6%, 화상 시 물집처치 8.5%, 치아손상에 관한 응급처치 11.0%, 간질 발작 시 응급처치 18.8%로 20% 미만의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표 11).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점수를 비교한 결과, 5학년이 14.52±3.6점으로 4학년 13.48±4.6점, 6학년 13.63±4.0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성별, 성적,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가정형편, 등교수단, 운동여부, 질병유무에 따른 지식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2).

6. 응급처치 교육요구도

대상자 특성별 응급처치 교육요구도를 비교한 결과, 5학년에서 '원함'이 72.5%로 4학년 65.9%, 6학년 50.4%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 63.0%, 대졸 68.9%가 대학원졸 48.8%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운동을 하는 학생

〈표 11〉 응급처치 지식 정답률

변 수	명 (n=437)	%
2. 찰과상 시 응급처치	364	83.3
7. 두부손상 후 병원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62	82.8
16.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응급처치	352	80.5
29. 심폐소생술에 관한 응급처치	342	78.3
5. 화상 시 냉찜질에 관한 응급처치	312	71.4
13. 귀에 벌레가 들어갔을 때 응급처치	303	69.3
3. 자상 시 응급처치	301	68.9
27. 기도폐쇄 시 1순위 응급처치	292	66.8
21. 동상 시 응급처치	288	65.9
8. 두부출혈 시 응급처치	282	64.5
22. 일사병 시 응급처치	277	63.4
6. 두부손상 시 코, 귀로 출혈이나 분비물이 있을 시 응급처치	158	36.2
9. 염좌 시 냉찜질 효과	265	60.6
10. 염좌 시 탄력붕대 효과	246	56.3
19. 치아손상의 응급처치(우유, 물 등)	243	55.6
1. 절상 시 응급처치	228	52.2
17. 눈에 날카로운 물질이나 출혈이 있을 시 응급처치	215	49.2
26.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	212	48.5
23. 발에 쥐(경련)가 났을 시 응급처치	197	45.1
18.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갔을 시 응급처치	184	42.1
28. 기도확보를 위한 응급처치	136	31.1
15. 비출혈 시 응급처치	128	29.3
12. 골절 시 응급처치	100	22.9
11. 탈구 시 응급처치	95	21.7
25. 간질 발작 시 응급처치	82	18.8
20. 치아손상의 응급처치(뺨 속이나 혀 밑)	48	11.0
4. 화상 시 물집처치	37	8.5
24. 벌에 쏘였을 시 응급처치	29	6.6
14. 귀에 작은 콩이 들어갔을 때 응급처치	20	4.6
지식점수(점)	13.95 ± 4.1	

〈표 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점수 비교

단위 : 평균±표준편차

	변 수	지식점수	t or F	p
성별	남	14.1±4.2	0.969	0.333
	여	13.8±4.1		
학년	4학년	13.48±4.6	3.037	0.049
	5학년	14.52±3.6		
	6학년	13.63±4.0		
성적	상	14.58±3.7	2.157	0.117
	중	13.75±4.1		
	하	13.35±4.7		
아버지의 학력	고졸이하	13.90±4.2	0.266	0.766
	대졸	14.07±4.0		
	대학원졸	13.63±4.0		
어머니의 학력	고졸이하	13.54±4.4	2.334	0.098
	대졸	14.42±3.8		
	대학원졸	13.78±3.6		
가정형편	상	13.77±4.6	0.780	0.459
	중	13.95±3.8		
	하	15.20±5.1		
질병유무	유	13.63±4.0	0.686	0.493
	무	14.01±4.1		
응급상황 경험	유	14.16±4.0	1.013	0.312
	무	13.76±4.1		
응급교육 이수	유	14.01±3.9	0.470	0.639
	무	13.81±4.6		

t-검정, 분산분석으로 검정

이 66.8%로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 50.7%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응급상황을 경험한 학생의 교육요구도가 69.7%로 경험하지 않은 학생 59.4%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교육요구도는 학년, 어머니의 학력, 운동여부, 응급상황 경험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성별, 성적, 아버지의 학력, 가정형편, 등교수단, 질병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3).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응급처치 내용은 일사병(63.4%), 동물이나 벌레에 물렸을 때 처치(61.6%), 일반적인 외상의 처치 및 붕대법(60.2%), 중독(56.8%), 기도폐쇄, 심폐소생술(54.2%) 순이었다. 교육을 받고 싶은 교육자는 보건교사(58.1%)가 가장 높았고, 외부강사(28.1%), 담임교사(7.6%), 기타(1.4%) 순이었다(표 14).

응급처치 교육요구도와 관련 있는 특성을 알아보

〈표 1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요구도

단위 : 명(%)

변 수		원 합	원하지 않음	χ^2 or t	p
성별	남	141(60.8)	91(39.2)	2.361	0.124
	여	140(68.3)	65(31.7)		
학년	4학년	87(65.9)	45(34.1)	15.859	0.01
	5학년	132(72.5)	50(27.5)		
	6학년	62(50.4)	61(49.6)		
성적	상	80(64.5)	44(35.5)	0.007	0.996
	중	179(64.2)	100(35.8)		
	하	22(64.7)	12(35.3)		
아버지의 학력	고졸이하	106(62.7)	63(37.3)	1.450	0.484
	대졸	145(66.8)	72(33.2)		
	대학원졸	30(58.8)	21(41.2)		
어머니의 학력	고졸이하	126(63.0)	71(37.0)	6.238	0.044
	대졸	135(68.9)	61(31.1)		
	대학원졸	20(48.8)	21(51.2)		
가정형편	상	67(69.1)	30(30.9)	1.331	0.514
	중	204(62.8)	121(37.2)		
	하	10(66.7)	5(33.3)		
등교수단	도보	261(64.0)	147(36.0)	0.117	0.732
	기타	20(69.0)	9(31.0)		
운동여부	유	246(66.8)	122(33.2)	5.897	0.015
	무	35(50.7)	34(49.3)		
질병유무	유	48(73.8)	17(26.2)	2.561	0.110
	무	233(62.6)	139(37.4)		
응급상황 경험	유	145(69.7)	63(30.3)	4.620	0.032
	무	136(59.4)	93(40.6)		
응급교육 경험	유	208(66.7)	104(33.3)	2.309	0.129
	무	73(58.4)	52(41.6)		
응급처치 지식점수		14.2±4.2	13.49±3.9	-1.772	0.077 ⁺
계		281(64.3)	156(35.7)		

χ^2 -검정으로 검정, + : t-검정으로 검정

고자, 응급처치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와 원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비차비(95% 신뢰구간)가 성별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1.63(95% 신뢰구간 ; 1.06-2.51)이었으며, 학년에서 4학년에 비해 6학년의 교육요구에 대한 비차

비 0.55(95% 신뢰구간 ; 0.33-0.94),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 비해 대학원졸인 경우 0.44(95% 신뢰구간 ; 0.22-0.90),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하는 학생이 1.94(95% 신뢰구간 ; 1.10-3.41)이었다. 지식점수와 응급상황 경험은 교육요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표 15).

〈표 14〉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경우 원하는 내용과 강사

변 수		명	%
내용 (다중응답)	일사병 처치법	277	63.4
	동물이나 벌레에 물리거나 쏘였을 때 처치법	269	61.6
	일반적인 외상의 처치 및 봉대법	263	60.2
	중독 처치법	248	56.8
	기도폐쇄 처치법	237	54.2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237	54.2
	눈·귀의 이물질 제거법, 치아손상 처치법	235	53.8
	간질발작 처치법	218	49.9
합 계		1984	
교육자	보건교사	254	58.1
	외부강사	123	28.1
	담임교사	33	7.6
	기타	6	1.4
	원하지 않음	21	4.8
합 계		437	

〈표 15〉 응급처치 교육요구도와 관련 있는 특성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 수	비차비	95% 신뢰구간
성별	여/남	1.63 1.06-2.51
학년	5학년/4학년	1.47 0.89-2.44
	6학년/4학년	0.55 0.33-0.94
어머니의 학력	대졸/고졸이하	1.13 0.72-1.76
	대학원졸/고졸이하	0.44 0.22-0.90
운동여부	유/무	1.94 1.10-3.41
지식점수		1.03 0.98-1.09
응급상황 경험	유/무	1.46 0.59-2.22

IV. 고 찰

일생의 건강태도와 건강행위 형성은 학령기부터 시작되므로 학령기의 건강에 대한 인식은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며¹⁸⁾,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응급처치 교육은 일정한 시기에 단편적으로 교육을

하기 보다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연령에 맞게 점진적으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교육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이 된 후 경험한 응급상황, 응급상황에 대한 인식, 응급처치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

응급처치 관련지식, 응급처치 교육요구도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이 된 후 경험한 응급상황은 상처(25.4%), 소화불량(11.0%), 염좌(10.5%), 복통(6.2%), 속쓰림(5.9%), 골절(5.7%) 순이었고, 응급상황을 경험하게 된 원인으로는 추락이나 낙상(41.3%), 음식 등을 잘못 먹음(14.9%), 물건 등에 부딪침(9.6%), 교통사고(8.7%), 운동 중 부상(7.2%)으로 안전사고와 관련된 외상과 소화기 이상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가장 높았다. 학교안전공제회²⁴⁾의 2003~2005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교생의 사고발생률과 비교한 결과, 사고의 내용은 골절(40.3%), 상처(24.2%), 치아손상(21.0%), 염좌(7.9%) 순이었고, 사고의 원인은 추락이나 낙상(60.4%), 충돌(29.3%)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공제회의 결과는 장소를 학교로만 한정하였고, 질병을 제외한 사고발생률만 알아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와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추락이나 낙상, 충돌로 인한 골절, 상처, 염좌로 인한 사고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외상과 관련된 응급처치 교육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응급상황 경험률은 47.6%였고, 성별, 어머니의 학력, 등교수단, 운동여부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편으로 조사되어 선행연구의 결과^{4,12,13)}와 일치하였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활동이 많고 과격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된다.

운동여부에서는 운동을 하는 경우에 응급상황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행연구¹⁴⁾에서도 놀이, 스포츠 등 운동의 참여는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나 이로 인해 사고의 발생률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운동 중 부상을 당했다는 학생이 7.2%를 차지하여 운동을 하는 학생에서 응급상황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하겠다.

응급상황은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많은 수의 학생이 대부분의 일과를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이라 생각이 된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 중 점심·쉬는 시간이 35.3%로 높은 것은 교사가 부재중이거나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높고 안전에 대한 기본 습관이나 질서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³⁾, 교사들의 더 각별한 주의지도가 필요하며, 학생들에게도 응급처치 교육과 더불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응급상황을 목격 시 최초행동은 ‘직접 응급처치’를 하겠다는 대답이 10.5%로 학생들의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생각되고 ‘도움을 요청한다’가 85.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도움을 요청한다면 ‘119에 연락한다’는 답변이 53.2%로 나타났는데 이는 박³⁾이 보고한 것과 같이 소방기관에서 화재, 구조, 구급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안전홍보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응급처치 교육 경험률은 71.4%로 나타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¹⁹⁾에서도 78.1%로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²⁰⁾에서는 20.4%,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¹⁰⁾에서 30.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²¹⁾에서 26.6%로, 중·고등학생, 대학생의 응급처치 교육경험률은 본 연구와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찰 발달 단계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단계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응급처치 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하였거나, 거의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내용은 생명과 직결되는 심폐소생술(52.5%)과 기도폐쇄(30.4%),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외상의 처치 및 붕대사용법(48.7%)이었으며, 체육시간이나 방송교육 시간에, 보건교사나 외부 전문강사에게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급처치 관련 지식에 대한 정답률은 전체 문항수 29문항 중 13.95 ± 4.1 점이었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0점 이하로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응급처치 교육 경험률 71.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문 결

과상 응급처치 교육은 받았으나 한, 두 가지 종류의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응급처치 교육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이유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귀의 이물질에 대한 처치, 벌에 쏘였을 때 응급처치, 화상 시 물질 처치, 치아손상의 처치, 간질 발작 시 응급처치에 대한 질문은 20% 미만의 정답률을 보여 이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요구도는 '원함'이 64.3%로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고, 학년, 어머니의 학력, 운동여부, 응급상황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서는 4학년이 6학년에 비해 1.81배(95% 신뢰구간 ; 0.33-0.94)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교육요구도가 높았고, 5학년이 4학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1.47(95% 신뢰구간 ; 0.89-2.44)배 교육요구도가 높아 4, 5학년에서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요구도를 조사한 연구¹⁹⁾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5학년이 6학년에 비해 요구도가 높았고, 응급처치 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 요구도를 측정한 연구²²⁾에서도 5학년에서 6학년보다 안전교육 요구도가 높았던 결과와 일치했다. 6학년에서 교육요구도가 감소한 것은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6학년 학생이 87.0%로, 응급처치 교육에 많이 노출된 상태이고,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관심보다는 상급학교 진학 등의 관심이 더 큰 이유로 교육요구도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학년별 특성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의 교수기법을 달리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되, 특히 교육요구도가 높은 4, 5학년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면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운동을 하는 학생의 교육요구도가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보다 1.94배(95% 신뢰구간 ; 1.10-3.41) 높았으며, 이는 운동을 할 경우 응급상황 발생률이 높아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을 더 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교육요구도는 고졸이하가 대학원졸에 비해 2.27배

(95% 신뢰구간 ; 0.22-0.90)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가정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아,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에서 교육요구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되나,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교육요구도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응급처치 교육은 일사병 처치(63.4%), 동물이나 벌레에 물렸을 때 처치(61.6%)로 선행연구^{19,20,23)} 결과에서 심폐소생술, 외상의 처치와 붕대사용법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에 비해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은 응급상황 발생률이 흔치 않아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되고, 연구조사 시기가 7월로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의 위험이 마스크이나 보건교사로부터 노출된 것과 여름철 동물이나 벌레에 물리거나 쓰이는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요구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계획 시 심폐소생술이나 외상의 처치 등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교육하도록 하고, 계절이나 상황에 맞춰 학생들이 흥미나 관심이 있는 내용에 대해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일부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에 전 초등학교 고학년생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응급상황 경험과 응급처치 교육경험의 조사시점을 초등학교생이 된 이후로 학생 기억에 의존하여 조사하였으므로, 학생들의 기억력 차이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선행연구들이 주로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수준을 조사하였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지식수준을 조사한 연구는 없어 초등학교 학생들의 지식수준을 알아보는 계기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응급상황 경험률은 높았으며, 특히 안전사고 관련한 응급상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응급처치 교육과 더불어 안전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

이수 경험률은 높았으나,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학교당국과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교육요구도를 반영하여 이론 교육 뿐만 아니라 실습이나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응급상황 경험률과 응급처치 교육 경험률에 따른 응급처치 지식수준과 교육요구도를 파악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008년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2개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분석자료로 437부를 사용하였다.

초등학생이 된 후 경험한 응급상황은 47.6%였고, 상처(25.4%), 소화불량(11.0%), 염좌(10.5%), 복통(6.2%), 속쓰림(5.9%), 골절(5.7%)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상황 경험률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고,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에서 고졸이하나 대학원졸에 비해 높았고, 도보 외의 등교수단이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보다 높았고, 운동을 하는 학생이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응급처치 교육 경험률은 71.4%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우수할수록 응급처치 교육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내용은 심폐소생술(52.5%), 외상의 처치 및 붕대법(48.7%)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처치 지식 정답률은 29문항 중 13.95 ± 4.1 점으로 100만점으로 환산할 시 50점 이하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5학년에서 4, 6학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응급처치 교육요구율은 64.3%로 나타났고, 응급처치 교육요구와 관련있는 특성을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1.63배(95% 신뢰구간 ; 1.06-2.51), 4학년이 6학년에 비해 1.81배(95% 신뢰구간 ; 0.33-0.94),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가 대학원졸에 비해 2.27배(95% 신뢰구간 ; 0.22-0.90), 운동을 하는 학생이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1.94배(95% 신뢰구간 ; 1.10-3.41) 교육요구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육을 받고 싶은 내용은 일사병(63.4%), 동물이나 벌레 물렸을 때 응급처치(61.4%) 순이었고, 교육을 받고 싶은 교육자는 보건교사(58.1%), 외부강사(28.1%)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시기 학생들의 응급상황 경험률은 높았으나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수준이 낮은 상태로 조사되어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요구도와 지식수준을 감안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로 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참고 문헌

1. 이창희. 초·중·고 교과서의 응급처치 교육 내용 분석.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 www.nso.go.kr 통계청. 2006년 사망원인 통계연보. 2008.
3. 김정숙. 초등학교 안전생활 관련 교육현황 및 지식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4. 전춘옥. 초등학교 학내사고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5. 김미선.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응급처치 실기교육 효과 -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와 환자상태 확인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 학위논문. 2004.
6. Flaherty L. From the feds. *J Emer Nurs* 2000;26(4):355-359.
 7. Lewis RM, Fulstow R, Smith GB. The teaching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n schools in Hampshire. *Resuscitation* 1997;35(1):27-31.
 8. Eisenburger P, Safar P. Life supporting first aid training of the public review and recommendations. *Resuscitation* 1999; 41(1):3-18.
 9. 홍경용, 남철연, 최상복, 위광복, 김기열. 중·고등학교 응급처치 지식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1;18(3):77-88.
 10. 조경호. 고등학생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1. 권혜란, 정지연. 대학생의 응급처치 지식수준 실태조사.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003;7(1):81-94.
 12. 심은순. 초등학생 안전의식 및 실천정도와 안전사고 발생 실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3. 박대성, 김광석. 초등학생 안전의식 및 안전사고 발생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005;9(2):5-20.
 14. 이혜진. 초등학교 학교안전사고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5. 정혜인. 초등학생 안전교육 경험에 따른 사고 위험 행동수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6. 서순희. 일개 초등학교 교사의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 및 교육요구도.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7. 황정연, 강경희.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서울 : 한미의학 ; 2006:56-114.*
 18. 김미남. 보건교육이 초등학교 아동의 건강범위 실천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19. 조근자, 최은숙, 이현주.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응급처치 교육실태 및 교육요구도.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007;11(3):175-189.
 20. 배정옥. 중학생들의 응급처치에 관한 인식 및 교육요구도.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21. 고봉연, 이정은. 대학생들의 응급처치 교육요구도. *동남보건대학논문집* 2001;19(2):259-268.
 22. 김택희. 초등학교 안전교육 내용 분석연구 - 학생들의 안전교육요구도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3. 김훈철. 중학교 응급처치 교육실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24.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발생유형*. 2006.

=Abstract =

The State of First Aid Experience, and Knowledge and Educational Wants for First Aid of Senior Students in Some Elementary Schools

Yu-Jin Kwon* · Sang-Gil Jeong**

Purpose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knowledge and educational wants for first-aid and its related factors of senior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Methods : From July 11-25, 2008, this study surveyed 437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Result : Of the study subjects, 47.6% of the subjects had experienced first-aid conditions : 25.4% had injuries, 11.0% had indigestion, 10.5% had sprains, 6.2% had acute abdominal pains, 5.9% had brash, and 5.7% had fractures. The experience rates of first-aid condition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mothers' educational status, means of school attendance and amount of exercise.

The experience rate of first-aid education was 71.4%.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grade, and school reports. They had education abou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52.5%), injury treatment and desmology(48.7%) in a good order.

The score of knowledge about first-aid was 13.95 ± 4.1 and it was converted on the basis of 100 points, the results were below 50point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grades.

Educational wants for first-aid was 64.3%, and as a result of multi-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characteristics relating to educational wan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der, grade, mothers' educational status, and amount of exercise.

Conclusion : The rate of first-aid experi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high, but as their recognition and knowledge on first-aid was low, the importance of first-aid education and educational wants should be reflected for practical and organized education.

Key Words : First Aid Experience, Knowledge, Educational Wants

* Department of 119 rescue, Gwangsan fire station Gwangju Metropolitan City

**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